

멸망의 옛 틀에서 회복의 새 틀로

-복음으로 여는 아모스-

아모스9:11-15, 고린도후서5:17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가운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은 황폐해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복음으로 제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소선지서 중 하나인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아모스서의 저자는 아모스이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는 뜻이다. 그는 예언자는 아니었고 뿔나무를 키우고 목동생활을 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동생활을 하든지, 뿔나무를 키우든지 하나님께 해를 끼치지 않는 데 아모스는 상당히 영세한 농업을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었다. 또 이름 자체가 ‘짐을 진 자’인데,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는가. 과거에는 양반, 상놈만 있었다. 이름도 없이 그냥 마당을 쓰는 사람은 이름이 마당쇠였다. 그런 비슷한 이유였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기의 시대에 아모스와 같은 비천한 자를 불러주셨다. 이유가 없을까? 아니다. 부한 자는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 제앙의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길 줄 믿기를 바란다. 왜 아모스를 부르셨을까 목상해했다. 누에는 뿔나무 있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양이나 염소는 목자를 떠나면 위험해진다. 구약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을 직접적으로 예언한다.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예언은 300-500개 정도가 되고, 간접적인 예언이 구약에는 3천 개정도 된다고 한다. 여기서 아모스가 목자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동을 했던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인데 세상을 보는 눈이 엘리트나 고관대첩보다 더 빠르게 본 것이다. 예언자와 선지자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언자의 예는 ‘말길 예’이다. 미래를 예언하고 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예언자이다. 예언자의 역할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가서 ‘제가 예언자입니다.’ 해서 또 이단 만들지 말고.(웃음) 예언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말기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신학성 때 책을 읽었는데, 한 본문은 한 이야기만 말하고 있다고 한다. 편지나 글을 쓸 때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한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인간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 받고 승리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것이 대주제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합백과라는 책이 있다. ‘전체의 대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그 외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치유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목적인 것이 아니다. 아모스서를 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인간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아모스서의 기록연대는 주전 800년 정도 된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한 출신인데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북한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옛날에 파나마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신다. 옆에 사회주의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가 6년 동안 비를 안 내려주셨다고 한다. 물론 그 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법사에 잘되는 모든 응답을 주시는 것 같다.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에 갔다 오니까 무슬림, 우상이 많다. 그러니까 제앙과 저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은 조금 좋아졌어도 인간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지역과 문화가 아주 많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스위스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스위스, 싱가포르보다 더 잘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과거의 스위스는 굉장히 못 살았다. 스위스를 관광하는데 가이드가 군인들이 싸우는 벽화를 설명해 준다. 왜 설명해주는가 했더니, 과거 스위스가 너무 못 살아서 아버지들이 전쟁에 용병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스위스를 먹여 살렸다고 한다. 지금의 스위스는 아주 잘 살지 않는가. 얼마 전에 국민투표를 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1인당 매달 300만원씩 주자.’라는 주제로 국민투표를 했다. 그러면 70%가 부결시켰다. 우리 한국에서 하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가표가 많을 것이다.(웃음)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바로 종교개혁했던 나라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치유해 주셨구나. 그 축복이 천 년 동안 가는구나.’ 설교하면서 ‘예수 믿었던 나라가 다 잘 되는 것을 보라. 우상

숭배했던 나라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 걸리는 나라가 하나 있었다.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요새 보니까 제앙이 계속 온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쓰시고 계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수출을 막고 우리를 괴롭히던 하나님이 일본을 더 때리신다. 넓게 생각하면 일본, 한국, 중국이 북을 판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세계복음화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라서 설교할 때 몰래 한다. 그런데 그 곳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른다. 중국에 가면 굉장히 피곤한데 아침 일찍 설교하고 저녁에도 설교한다. 사람들도 한 명씩 들어오고 나간다. 이번에 바누아투를 갔는데 중국인들이 아주 많았다. 케냐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니하오마’라고 한다. 그렇게 중국인들이 그곳에 많다. 나오면서 그거기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가 북쪽이라고 남쪽이라고 묻는다. 그래서 남쪽에서 왔다고 하니가 아주 힘이 센 나라에서 왔다고 한다. 중국과 일본에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란다. 연약한 아모스였지만 남은 자가 되었을 때 전 세계, 후대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다.

아모스를 기록한 목적은 북이스라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부모님, 선생님들은 자녀들과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한다. 그 꾸지람의 이유는 그들이 반성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 자녀들이 반성을 하지 않으면 버리는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하더라도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자녀가 문제 일으키면 더 관심가지시고 기도하지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관심 받기 위해서 계속 문제 일으켜야지.’ 하면 안 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끝까지 붙잡아주신다. 여러분이 잘못할수록 하나님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기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격정 끼쳐 드리지 않고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영적으로 효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쓰시겠는가.

1. 북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 받을 수밖에 없는 옛 틀을 가지고 있었다.

(1) 복음가진 형제인 길르앗을 압박했다. 아모스서 1장 3절 중간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은 북왕국 북쪽 지역을 말한다. 사마리아 지역이며 그 안에 사마리아 성이 있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떤 죄인가.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 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가까운 형제인데 압박한 것이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얼굴색이 전혀 다르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겠는가, 일본과 중국이 우리의 형제겠는가. 사실은 그렇게 먼 핏줄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이다. 그런데 보복하고, 패권으로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우리를 어렵게 했을 때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중국의 모양은 닭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부리가 한반도라고 한다. 입을 막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이 잘되면 한국도 잘 돼야 한다.(웃음) 우리는 인간의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강한 나라, 앗수르, 바벨론, 로마는 다 망했지만 그 나라는 지금도 있다. 마찬가지이다. 형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남쪽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사랑을 잘 하니까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징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승리할 수 없다.

(2) 아모스 선지자는 다민족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다문화민족인 에돔이 바로 TCK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유는 항상 맹렬한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에돔족의 옛 틀이다. 아모스 1장 11절 하반부에 보면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어떤 분을 보면 항상 화가 나있는 사람이 있다. 약간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욕한다. 그 자체가 제앙이다. 갱신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러나 성질이 더러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질이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나 많은 응답을 놓치게 된다. 하나님은 갱신, 거듭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 너무 얕전한 사람도 갱신하고 틀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서 다문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의외로 다문화, 다민족에게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화도 많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가 한국 남자들이 폭력하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하고, 갱신해야 하는 부분이다. 여러분이 성질이 조금 더러워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많은 것을 놓친다. 갱신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애가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끝났는가? 전혀 아니다. 아이를 길러서 유치원, 초등학교도 가야하는 것이다.

(3) 그들의 포학과 겁탈하는 삶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들의 진정한 죄는 무엇인가. 성령충만해야 할 사람들이 악령충만했다. 이번에 케냐에 가서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피터 투트 선교사님을 만났다. 남수단, 북수단으로 갈라졌는데 종교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북수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났다. 남수단에 기존 토착세력이 기독교를 믿는 소수부족인데, 정권을 가지고 있다. 쫓겨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인구가 더 많은 북쪽 사람들인데 반군세력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계속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UN에서 난민보호지역을 마련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권을 쥔채로있겠다는 반군이 있어서 반군과 정부군은 계속 서로 싸우는 것이다. 정말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았다. 포학과 겁탈이 일상화되어있다. 정말로 사단의 세력, 악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 그 현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먼

일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19살 때 이북에서 살다가 피난 내려왔다. 우리세대이다. 우리가 또 복음 안에서 확실히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이제는 긴 전쟁도 필요 없이 원자폭탄 하나면 제앙을 만난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앙을 막기를 바란다.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후대들이 일어나야 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요세 우리가 이념과 갈등 때문에 이쪽에서 데모하고 저쪽에서 데모한다. 우리 시대는 독재를 타도했던 시대이지지 않은가. 돌 던지고 최루탄을 던졌다. 전공이 데모인 시대이다.(웃음) 요즘 이런 갈등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촛불로 의사를 평화롭게 마음껏 표출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통해 잘 성장해서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본을 보라.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이 우민화되어서 정부가 잘못해도 아무 말을 못한다. '왜 저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 하지?' 생각했다. 일본에서는 협한 서적이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욕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정상적인 나라겠는가? 사이가 안 좋아도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런 성향이 생겼는가? 했더니, 일본은 한 번도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든 적이 없다. 2차 대전은 천왕이 전쟁하라고 하니가 다 나가서 수 십만이 죽었는데 원자폭탄을 두 번 맞고 미국이 와서 승리했다. 국민이 일어나서 투쟁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모르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일본은 천왕을 모시는 종교집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여기서 의지를 표현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면서 성숙해져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12명의 사람이 돌아가면서 정치를 한다. 2차대전 때 히틀러가 쳐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스위스이다. 집집마다 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워서 바른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민주주의는 아니다. 세계복음화를 투표해서 하겠는가. 우리나라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비교적 착해야 한다. 오늘 이 시간 비교적 안착하다면 다시 집중기도 하기를 바란다.(웃음)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싸운다고 한다. 가만히 보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문제이다. 한국은 많은 상처 속에 있으니까 그 문화가 성격적으로 바뀌기 전에 정착화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잘못된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란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성품과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 비교적 착해야 한다.(웃음) 포학과 겁탈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거짓이 많고 악한 사람이 많고 성격이 더러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우리는 악으로 악을 못 이긴다. 우리는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한계가 있다. 하나님을 버리면 싸우겠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해 주셔야 한다. 다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다. 그래도 인간적인 혈기로 하려는 사람이 있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주께 맡기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행이 찾아온다.

(4) 사마리아 사람들은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다. 아모스 4장 1절에 기록되었다.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5)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쓸개와 쏭같이 만들었다. 아모스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쏭으로 바꾸며' 정의롭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공평하고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정의롭고 공평해야 하며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양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6)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모스 6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뿔은 권력을 뜻한다. 무엇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다. 공부, 합계, 경제, 나라발전도 우리 힘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만할 바에는 차라리 무능한 것이 낫다. '나는 왜 이리 무능할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께서 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도리어 축복이다. 오늘도 새가족 훈련에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주제로 말씀을 나눴다. 행복하냐고 물으니가 행복하다고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다. 광옥에 갇혀도 채찍을 맞아도 오직 예수로 행복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광옥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십 년을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나머지 부분은 다 따라오게 된다. 내가 만나본 일본 기독교인이 정말로 일당백을 한다. 오사카에 광림교회가 있다. 처음에 그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한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한 시간 거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십년 동안 계속 나온다.' 제가 만난 로리모토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본인에 한국에 올 때마다 회개하신다. 기독교인은 다 회개한다. 교회가 점점 무너지니까 지탱했던 영적 기둥이 없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한다. 그들이 잘못하니까 불매운동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들이 반성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 결국에는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반성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는가. 굉장히 큰 힘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피송하는 말을 못한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민족이 죄와 허물과 관계없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회복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대단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주시는가? 아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중요한 줄을 믿기를 바란다. 백좌점을 가면 꼬마가 떼쓰며 슬프게 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보면 너무 귀엽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영구는 것이다. 가끔 부모님이 없으면 웃고 뛰어도 마음이 아프다. 부모님이 없으니까. 제가 케냐에 갔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보이는 꼬마 형제가 있었다. 흑인 속에 한국인 형제가 있다. 형이 동생을 보살핀다. '우리 아빠도 교회를 했는데 지금

은 안하고요, 할머니가 보내서 왔어요.' 기도도 되고 마음이 짝하고 아프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1) 새 틀의 사람은 강단메시지와 세계복음화 메시지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어도 새 틀의 사람,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응답을 받게 된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6년 전에 케냐에 갔더니 교회 문을 닫게 된 상황이었다. NGO와 유치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더니 지금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5층건물을 짓고 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6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 붙잡고 계속 달려왔는데 다 응답받았다' 그 낯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내 그 말씀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줄을 믿는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

(2)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임한 제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셨다. 아모스서 5장 4절이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희 아버지도 모든 것이 깨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나중에는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다.

(3)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모스서 7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니까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니까 아모스가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이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우리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다.

(4)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관계없이 그 날이 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다시 약속하고 계신다. 그것이 아모스 9장 14절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오랫동안 불신앙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응답과 축복이 회복될 줄을 믿는다. 이것이 새 틀의 축복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10년, 20년이 날아가는 사람들을 봤다. 특히 램턴트들은 힘들고 안 맞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중요한 세월을 불신앙하지 말라. 여러분의 성격 옥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고 순종하라. 자존심을 꺾어라. 아무리 좋은 차도 구덩이에 박히거나 돌맹이 하나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한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 성격, 성질, 불신앙, 자존심은 굴러다니는 돌맹이 하나와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막혀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인강으로써 복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과 같이 멍청한 일이 없다고 한다. 어려운데 아니냐. 나는 무능력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무엇이 어려운가.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라는 것이 어려운가. 그리스도로 결론내리고 여러분의 새 틀의 축복으로 지금부터 걸어가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미래전도 6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첫 번째는 Leverage이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영적 성장의 레버리지로 삼아야 한다. 꾸지람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구원받았고 천국에는 갈 수 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응답 받지 못하고, 세계복음화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다.

2. 두 번째는 Vessel, 그릇이다. 아모스처럼 사이가 나쁜 형제인 북이스라엘, 예돔족속은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들에게도 참 복음을 전하는 인생캠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3. 세 번째는 Transmission, 전달이다. 북이스라엘 민족처럼 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여 치유하는 전도캠프의 삶을 살아야겠다.

4. 네 번째는 Nobody이다. 복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때 하나님은 평범한 목동 아모스를 부르셨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한다.

5. 다섯 번째는 Platform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가장 어려운 위기시대에 남북왕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중심적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오늘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는다.

6. 마지막 여섯 번째는 Outsourcing이다. 결국 아모스의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시대의 램턴트들에게 100년, 200년 후에도 전달되었다. 그래서 언약의 전달된 포로시대의 램턴트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70년 만에 회복하게 되었고, 약 150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응답까지 받게 되었다. 그 시작이 아모스였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위기와 제앙의 시대에 치유와 회복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평범하고 언약하고 무능한 저희를 불러주시어 이 시대를 치유한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행복하여서 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